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4년 4월 8일(화)

□ 미국 경제 동향

- 1) 3월중 비농업 신규고용 19만2000명 증가
- 2) 美 IPO 러시...이번 주 14곳 상장
- 3) 미-유럽 은행 대출 크게 감소 추세
- 4) 연준(FRB)의 볼커를 완화 불구, 월가 불만 여전

□ 해외 경제 동향

- 1) 호주-일본 경제협정에 美 심기 불편
- 2)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 부상
- 3) 브라질, 저성장 및 고물가 피하기 어려울 듯
- 4) 홍콩, 다음번 금융위기 중심지될 가능성 급증

□ 산업·시장 동향

- 1) GM, 테슬라 견제...전기차에 4.5억달러 투자
- 2) 세계 최대 시멘트 업체 탄생, 건축자재업계 합병 바람

□ 미국 경제 동향

1) 3월중 비농업 신규고용 19만 2천명 증가

- 지난 4일(현지시간) 미노동부는 3월중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비 19만 2천명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시장 전망치와 전월의 19만7천명을 하회하는 수준
- 전문가들은 일자리 수가 2개월 연속 20만개에 근접했다는 점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엔 충분하다고 분석
- 한편, 3월중 실업률은 6.7%를 기록, 시장 참여율도 63.2%로 상승

2) 美 IPO 러시...이번 주 14곳 상장

- 지난 7일(현지시간) WSJ은 미국의 IPO 시장이 7년여 만에 주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IPO를 실시하게 된다고 보도
 -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 증시에는 14개 기업이 상장될 예정
- 이에 WSJ은 미국 증시의 주요 지표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충분한 수요가 이어져 온 데다, 미국 증시에 초점을 맞춘 뮤추얼 펀드로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
- 금주 IPO를 실시하는 기업들의 총 모금 예상액은 48억 달러로 이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주간 IPO 규모로는 지난해 12월 이래 최대 규모

3) 미-유럽 은행 대출 크게 감소 추세

- 지난 6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대출이 크게 줄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
 - 지난 1년간 미 은행들의 대출은 약 3% 증가,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은행들의 대출 가능 자금은 60% 증가
- 전문가들은 미연준(Fed)의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QE) 조치가 은행들의 대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은행들의 대출이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은 신용조합 등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

4) 연준(FRB)의 볼커를 완화 불구, 월가 불만 여전

- 지난 8일(현지시간) FT는 연준(Fed)이 볼커를 시행 시점을 오는 2017년 7월 21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루는 등 규제 수준을 완화했다고 보도
 - 연준(Fed)은 미 투자은행들이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¹⁾을 처분하는 데 예외적으로 약 2년의 시한을 주기로 결정
 - 다만 CLO 투자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은 거부
- 한편, FT는 연준(Fed)이 발표한 이번 완화규제안에는 CLO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에는 변경된 바가 없어 은행권의 반발이 극심하다고 지적
 - 은행권은 볼커를 시행에 따라 6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예상, 연준의 이번 완화안에는 업계가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주장

1) CL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산을 통째로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 해외 경제 동향

1) 호주-일본 경제협정에 美 심기 불편

- 지난 7일(현지시간) FT는 호주와 일본이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가운데 미국이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보도
 - 전문가들은 미국이 TPP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주-일본의 EPA가 체결된 현재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으로 분석
- 미국은 TPP 협상을 지난해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본과 농수산물 시장 개방수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체결에 차질을 빚은 바 있음

2)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 부상

- 지난 6일(현지시간) FT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나이지리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
 - 나이지리아 통계청은 지난해 나이지리아의 GDP가 5,090억 달러를 기록, 남아공 GDP를 초과한다고 발표
- 한편, 전문가들은 이로써 나이지리아가 G20 멤버가 되려는 야심을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

3) 브라질, 저성장 및 고물가 피하기 어려울 듯

- 지난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브라질 경제가 저성장 및 고물가의 수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

- 올해 브라질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3%에 그치는 반면 물가상승 전망치는 6.3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o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9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바 있음

4) 홍콩, 다음번 금융위기 중심지될 가능성 급증

- o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홍콩이 최근 호황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면에선 '금융 태풍'(financial typhoon)을 경고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홍콩에서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정경유착 등에 따른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배경으로 갑부들이 쌓아올린 재산이 GDP의 60%에 이르는 등 경제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
- o 전문가들은 최근 홍콩이 누리고 있는 호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선진국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
 - 미국의 저금리가 홍콩의 부동산 거품을 촉발, 이는 반짝경기가 결국 붕괴로 이어지는 주기적인 흥망성쇠(boom and bust)의 최신판이라고 지적
 - 또한 일각에선 홍콩 경제와 금융시장에 이례적인 수준의 조정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 홍콩이 최근 성장세 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
- o 한편,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발표한 올해 정실자본주의 지수에서 홍콩은 압도적 1위를 차지한바 있음

□ 산업·시장 동향

1) GM, 테슬라 견제...전기차에 4억 5천만 달러 투자

- 지난 8일(현지시간) WSJ은 GM이 4억5천만 달러 규모의 전기차 부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GM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시간주의 햄트랙과 브라운스톤 타운십에 있는 2개 공장에 4억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
- 한편, 전문가들은 GM이 지난해부터 미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테슬라 모터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

2) 세계 최대 시멘트 업체 탄생, 건축자재업계 합병 바람

- 지난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시멘트·콘크리트·골재 업체인 스위스 홀침과 2위인 프랑스 시멘트 업체 라파지가 합병을 발표
 - 합병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이며 합병사 CEO는 브루노 라폰트 라파지 CEO가, 회장은 볼프강 라이츨 홀침 회장 지명자가 맡기로 전해짐
- 한편 지난해 매출 규모는 홀침이 220억 달러, 라파지가 208억 달러로 집계. 끝.